

연세대학교 학우 여러분들께 드리는 글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 퇴진 및 총여학생회 전면 재개편 추진단〉

안녕하세요,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 퇴진 및 총여학생회 전면 재개편 추진단(이하 추진단)입니다. 추진단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과 입장, 그리고 많은 학우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사드립니다.

1. 추진단의 존재와 대표성, 목적 및 향후 진행에 대해서

추진단은 지난 5월 24일 발생한 연세대학교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이 독단 강행한 은하선 씨의 강연에 반대하는 학우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 분노하여 현재까지 3,000여 연세 학우분들께서 개편안에 서명해 주셨으며 지금도 그 숫자는 빠른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추진단은 오직 해당 서명안에 동의한 수많은 학우분들을 통해서만 그 존재 의의와 대표성을 가지며, 그 외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추진단은 학생총투표를 통해 제29대 총여학생회 퇴진 및 총여학생회 재개편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목소리를 성공적으로 반영시키는 것 외에 어떠한 목적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진단은 학생총투표의 최종 결과가 확정된 후 선거 결과와 관계 없이 공식적으로 해산하며, 어떠한 정치적 단체로도 남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학생총투표 가결 시 개편될 예정인 '학생인권위원회(가제)'는 본 추진단과 어떠한 관계도 없으며, 그 구성과 발족은 오로지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중앙운영위원회 및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서만 논의될 것이며, 해당 시점에는 추진단은 해산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단으로써 어떠한 의견도 제시할 수 없게 됩니다.

2. 추진단의 조직화 및 공식 입장에 대해서

추진단은 생긴지 하루밖에 되지 않은 단체입니다. 더욱이 특별한 구심점 없이 자원한 수많은 연세 학우들을 통해 결성되었기 때문에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힘들었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단은 앞으로의 논의 및 목표 달성의 효율화를 위해 단장, 부단장을 비롯한 실무 담당자들을 선정하고 의결을 통해 이를 공식화하였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 이후 추진단은 오로지 추진단 명의의 입장문 또는 게시글로만 그 입장을 밝힐 예정이며, 일부 SNS에서 확인되지 않고 올라오는 추진단 관련 글은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히는 바입니다.



3. 추진단이 지향하는 가치와 입장에 대해

추진단은 총여학생회의 퇴진 및 재개편을 통해 '모든 연세인들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개편안에 포함된 '학생인권위원회(가칭)' 역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따라서 추진단은 '모든 연세인들의 인권 보호 및 향상'이라는 궁극적 가치 이외에 어떠한 정치적 노선도 가지지 않을 것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본 사건이 커지며 대내외 수많은 단체들에서 연대 요청과 지지 의사가 표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단은 많은 학우분들께서 서명하신 '총여학생회의 퇴진 및 재개편'이라는 목적이 이를 통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추진단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 추진단이 스스로 정치 세력화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며, 동시에 개인이 아닌 어떠한 정치 단체와도 연대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4. 일부 언론사의 허위보도 및 SNS 상에서의 유언비어에 대해

추진단은 '총여학생회 폐지'를 주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향신문 등 일부 언론사가 자극적인 보도를 진행하여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총여학생회 폐지'가 아닌 '제29대 총여학생회의 퇴진 및 재개편'만이 추진단의 공식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또한 일부 언론 및 SNS에서는 지난 5월 24일 은하선 씨의 강연 종료 시에 주최측 인원이 반대 시위 참여자에 의해 폭력을 당하였다는 내용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임을 공식적으로 밝힙니다.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 외에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당일 강연 종료 시 시위 참여자들은 침묵 시위를 진행하였으며, 더욱이 당시 시위 인원 바로 옆에 총여학생회 측의 경호원이 지켜보고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추진단 측에서는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강연이 진행된 위당관 경비실, 보안 업체, 사무실 등을 방문하였으며, 해당 위치의 CCTV 열람을 요구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열람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추진단은 해당 사건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해결을 위해 총여학생회에게 해당 내용의 사실관계를 공동으로 검증할 것을 공개 제안합니다.

5. 후원 문의에 대해

본 사건이 큰 이슈가 되며 연세대학교 대내외적으로 정말 수많은 분들께서 지지 및 후원 의사를 표명해주셨습니다. 추진단은 학생총투표 시 투표율 독려 및 투표 시에 발생하는 현실적인 비용 마련을 위해 후원을 받을 것을 논의하였으나, 그 전에 추진단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지가 없는 이상 추진단은 공식적으로 외부 후원을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학생총투표 시 현실적인 비용 마련이 필요한 경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공개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계획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후원된 금액이 투표율 향상 및 투표 진행 외의 용도 등을 벗어나 부적절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그 집행 과정을 전면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6. 보다 많은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투명성 확보에 대해

추진단의 제안에 대해 현재까지 3,000여 학우분들께서 지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추진단은 모든 연세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해당 학우분들 뿐만 아니라 더 많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기를 원합니다. 추진단은 현재 SNS에 올라오고 있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주시하여 회의에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를 원하는 학우분들이 계시다면, 추진단에 공식 참여하여 앞으로의 내용을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겠습니다.

추진단은 불통이 아닌, 소통하는 단체가 되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명한 의결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추진단의 공식 회의 시 논의된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그 논의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자 하며, 열람을 원하는 누구나 해당 내용을 즉시 볼 수 있도록 온라인 상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상기한 추진단 의견 수렴 및 회의록의 공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단을 믿고 서명해준 수많은 학우분들, 그리고 서명안의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해준 수많은 연세 학우분들, 그리고 저희를 지지해준 수많은 여러분들을 위해 이 자리를 빌어 무한한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준 관심 헛되지 흘러가지 않도록 추진단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9대 총여학생회 '모음' 퇴진 및 총여학생회 전면 재개편 추진단 올림